

3. 선교사 멤버케어가 성경에 나오는가? Is Missionary Member Care in the Bible?

간단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짧게 답하면, “그렇다.”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성은 구약 요나의 삶과 니느웨에서의 선교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멤버케어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거절했다.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필요성은 신약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기간 동안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고린도와 빌립보 교회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파송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여섯 사람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요나: 첫 소명 Jonah: First Call

요나: 두 번째 소명 Jonah: Second Call

바울 Paul

스데바나 Stephanas

디도 Titus

에바브로디도 Epaphroditus

디모데와 마가 Timothy & Mark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기를 권한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을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마 22:37-40, 막 12:30-31). 이 계명은 수 천 년 동안 전해져 왔고(신 6:5, 레 19:18),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상기시켜주셨을 뿐이었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계명은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에 의해 되풀이되고 확대되었다.

-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요 15:12).
- 예수님은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라고 하셨다(요 13:35).
- 야고보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옳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약 2:8).

-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갈 5:14).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했다(살전 5:11).

서로를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성경은 멤버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요나)의 예와 멤버케어를 해 줄 여러 사람과 교회가 있는 사람(바울)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요나: 첫 소명 Jonah: First Call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는 보통 본인의 문화권으로 보내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타 문화권에서 섬기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요나에게는 그의 부르심을 소화하고 그가 가도록 준비를 도울 사람이 본국에는 없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두 구절에 자세하고 명료하게 나와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1장과 2장에서 요나는 우리에게 좋은 면과 나쁜 면 둘 다를 보여주고 있다.

-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좋지 않은 출발을 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서쪽으로 갔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렇게 했다(욘 1:3).
-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나는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갑판 아래로 가서 잠을 잤다(욘 1:5).
- 하지만 요나는 선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중이었음을 정직하게 말했다(요나 1:10).
-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의 신학은 옳았다(욘 1:9).
- 선원이 어떻게 해야할 지 물었을 때, 폭풍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했다. 자기 희생적이었다(욘 1:11-12).
- 요나는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를 드렸다. 요나는 감사와 서원으로, 구원이 주께 속하였음을 깨닫는 것으로 기도를 끝냈다.

1, 2 장에서는 멤버케어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요나: 두 번째 부르심 Jonah: Second Call

3장 1-2 절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짧을 뿐 아니라 자세하지도 않다. 다행히도 요나가 더 적절하게 반응했다. 3장과 4장은 요나의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동쪽 니느웨로 갔다(욘 3:3).
- 첫날 성을 돌아다녔다(욘 3:4).
-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욘 3:4).
- 사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고, 12 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욘 3:5-10, 4:11).
- 여전히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욘 4:2).
-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니느웨를 파괴하지 않으셔서 화가 났다(욘 3:10-4:1).
- 매우 불쾌해하며, 요나의 기도는 비통해지고, 자신(요나)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끝났다(욘 4:3).
-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뽀루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기다렸다(욘 4:4-5).
- 요나의 화는 주변 모든 것으로 퍼져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신 포도 덩굴이 마른 것에까지 화를 내었다(욘 4:6-9).

요나의 끝은 좋지 않았다. 멤버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나가 화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없음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요나가 그것을 잘 다스렸는지 또는 무덤까지 화를 갖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바울 Paul

신약에서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나열해주었다.

-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렸고
- 옥에 여러 번 갇혔고
-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았다.
- 계속해서 이동했고
- 밤 중에 바다에서 파선하기도 하고
-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 도시에서의 위협
- 시골/지방에서의 위협
- ‘거짓 형제들’의 위협
-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다.
- 굶고 목말랐다.
- 춥고, 입을 옷이 없었다.
-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렸다(고후 11:23-28).

바울에게는 확실히 멤버케어가 필요했고, 케어를 받았다. 바울은 멤버케어를 제공했던 다섯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스테바나, 디도, 에바브로디도, 마가, 디모데(브드나도와 아가이고 또한 스테바나의 멤버케어 상담에 함께 했다)였다.

스테바나 Stephanas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다(고전 16:15). 현재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는 당시 로마 지역으로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이다. 아덴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을지 모르지만, 고린도가 수도였다.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은 고린도에서 크리스천이 된 첫 번째 열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들 중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고전 1:16). 바울은 스테바나 가족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임을 강조했다(고전 16:15). 교회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을 때 가장 경험이 많고 귀한 멤버들을 보냈다.

바울은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라고 했다(고전 16:17-18). 초기 선교사 멤버케어 방문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갖고 갔고, 타 문화권에서 섬기는 이들의 영혼을 시원케 했음에 주목해라.

디도 Titus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할 때 바울은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말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였다”(고후 7:5).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에 대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는 선교사 멤버케어를 할 사람을 보냈다. 바울의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보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섬겼고, 그레데 교회의 목사였다. 바울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라고 했다(고후 7:6-7).

비록 분열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매우 민감한 교회였다. 하지만 다른 초대 교회들도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움직였다.

에바브로디도 Epaphroditus

마게도니아 북쪽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멤버케어가 필요함을 알았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돌보기 위한 멤버케어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바울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답장했다(빌 2:25).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자의 표본이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다(빌 2:26-27).

디모데와 마가 Timothy & Mark

바울은 도움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가까이 친구가 없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딤후 4:9). 바울은 계속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했다(딤후 4:11). 끝으로 디모데에게 겹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

바울은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고, 그가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데 자유했으며, 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다.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사람들과 멤버케어 방문을 가능하게 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했다.

독자에게: 이번 장의 질문에 대한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on@missionarycare.com. 이 메일에는 세 가지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2) 관련 웹사이트 주소(있을 시), (3) “선교사 멤버케어란 무엇인가”에 어떻게 더 좋은 답이 되는지. 제안해주신 것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책을 업데이트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